

《華語萃編(初集)》에 나타난 사회문화상 연구

—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을 중심으로 —*

蘇恩希**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본론
 - 1) 《華語萃編》의 저자, 책의 구성 및 내용
 - 2) 《華語萃編(初集)》에 나타난 사회문화상
 - (1) 의생활
 - (2) 식생활
 - (3) 주생활
3.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언어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써 인류사회의 가장 중요한 교제 도구이며, 문화의 결정체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한 민족 혹은 한 국가의 시대별 사회제도, 경제상황, 가치관, 사유방식, 풍속 등을 반영한다. 특히 언어학적 측면에서 어휘연구는 특정시대의 사회 문화적 정보를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자산이며 시대성과 지역성을 잘 나타내 중국어발전사 연구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 1901년 장차 대륙 침략 실무에 필요한 중국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일본인의 능숙한 중국어 구사와 원활한 중국생활을 위해 해외 중국어 교육기관으

* 본 논문은 2011년 숙명여대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 淑明女大中語中文學部 副教授

로 당시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이었던 上海에 〈東亞同文書院〉을 설립하였다.

본 논문은 〈東亞同文書院〉의 중국어교사 朱蔭成과 述功 그리고 일본인 교수 松永千秋와 眞島次郎이 직접 北京官話로 1914년 집필을 완성하고 1916년 출판 발행한 《華語萃編(初集)》에 나타난 어휘를 통해 그 당시의 의생활, 식생활 및 주 생활을 중심으로 당시의 사회문화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중국어교재의 출판은 시기적으로 중국이 역사적으로 전제체제가 종결되고 공화제가 출범한 시기와 맞물려 있어, 이 교재를 통해 소용들이 치는 당시 중국의 사회문화상을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아편전쟁으로 개항지가 된 이후 서양 여러 나라의 조차지가 설정되고, 서구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 온 중국 제2의 도시이며 첨단 도시인 上海의 당시 사회문화상을 살펴보는 일은 더욱이 그러하다.

먼저 《華語萃編(初集)》 사회 문화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시대성과 지역성을 반영하는 이 교재의 저자 및 판본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본론

1) 《華語萃編》의 저자, 책의 구성 및 내용

일본은 1901년 장차 대륙 침략 실무에 필요한 중국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해외 중국어 교육기관으로 당시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이었던 상해에 〈東亞同文書院〉을 설립하였다. 상해가 지리적으로 남북을 동글게 이어주고 수도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어 각 지역을 연결, 소통시키는 요충지로서 중요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東亞同文書院〉은 동아시아 문체와 중국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일본 상류층 사회의 인물들이 지지하는 東亞同文會에 의해 설립되었다. 일본 정부가 그것을 인가함으로써 학교의 규모와 토대가 견고해졌고 당시 일본의 많은 청년들로 하여

금 “중국에서 활약”하는 꿈을 실현하도록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¹⁾

일본인의 중국어 교육을 위하여 1900년 南京에 이 학교를 설립할 당시 학교의 명칭은 〈南京同文書院〉이라 하였다가, 의화단 사건으로 남경에서 상해로 학교를 옮기며 〈東亞同文書院〉이라 개칭하였다.

《華語萃編》은 이 〈東亞同文書院〉의 중국어교사 朱蔭成과 述功과 일본인 교수 松永千秋와 眞島次郎이 직접 北京官話²⁾로 1914년 집필을 완성하고 1916년 출판 발행한 중국어 교과서로, 초집부터 4집까지 총 4권의 책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출판배경으로는 〈東亞同文書院〉이 사회적 공신력과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륙 침략 실무에 필요한 중국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일본인의 능숙한 중국어 구사와 원활한 중국생활을 위해 《華語萃編》을 집필하였다.

이 네 권의 교과서는 재력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일관된 교육방침 아래 각 학년의 교수목표에 맞추어 서로 다른 내용으로 편집한 것인데 “이러한 점은 근대 일본 중국어교재에서 볼 수 없던 큰 특징이다.”³⁾

각 권을 집필한 상황 및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華語萃編(初集)》은 1916년 7월 10일 초판 발행된 제 1학년용의 회화중심 교재이다. 第二集은 1925년 4월 25일 발행된 것으로 교제상의 접대어가 주를 이룬다. 第三集은 1925년 3월 31일 발행된 것으로 상편은 상업류 50개 과이며, 하편은 농공류 18개 과이다. 第四集은 1933년 4월 1일 발행된 것이며 문화, 교육, 농공상 등 제 방면에서 제재를 가져왔고 또한 공식석상의 연설과 강연문을 포함하였다. 특별히 第二集의 교육목표는 ‘학생들이 제1학년 초급 때 배웠던 대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학생들로 하여금 언어를 습득함과 동시에 본문 내용을 통해 중국인의 습관과 예의, 중국 사회 제

1) [日]六角恒廣 著, 王洪順 譯, 《日本中國語教育史研究》218-220쪽 참고. 東亞同文書院學友會, 《沿革史》下編第3、4頁.

2) 德川藩幕체제가 붕괴되고 메이지 4년(1871년) 2월 외무성이 漢語學所를 개설한 것을 지표로 일본 근대 중국어교육은 시작되었다. 당시 중국어교육은 남경어로 실시되었는데, 외교상의 수요로 말미암아 메이지 9년(1876년) 9월부터 당시 중국 전역의 통용어였던 北京官話 교육으로 바뀌게 된다.

3) [日]六角恒廣 著, 王洪順 譯 《日本中國語教育史研究》, 231쪽.

방면의 상황을 이해시키고자 하였다.4) 第四集의 교육목표는 ‘일반사회의 고급회화를 습득하는 것이었다.’5)

본 논문은 現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소장 1935년 12판 《華語萃編(初集)》을 저본으로, 이 교재의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에 나타난 당시의 사회문화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의 맨 앞에 쓰여진 凡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실려 있다.

〈그림 1〉



凡例

- 一、本書初集は東亞同文書院第一學年用北京官話教科書として編纂せるものなり
(본서 初集은 東亞同文書院 제 1학년용 北京官話 교과서로 편찬한 것이다.)
- 一、本集に于ては専ら家常須要の語にして雅に過ぎず俗に失せず比較的簡易なる者を採擇編輯せり其稍夏雜なる交際應酬の語商界官場用語に至つては之を本書第二集第三集に收めたり。
(본서는 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말들을 실으면서 너무 고상한 표현

4) 《華語萃編》第二集“凡例”
5) 《華語萃編》第四集“凡例”

이나 속된 표현은 피하고 비교적 간단한 표현을 채택하여 편집하였다. 좀 복잡한 교제용 응대 용어나 상업용 및 官用 용어 등은 본서 제 2집과 제 3집에 실었다.)

一、本集に于ては語句の適切なる意義用法を知悉し易からしめんことを欲して總べて問答体を用ひたり従つて日常必須の語にして此に載する能はさりし者少からず教授者其意を含みて補講せられんことを希ふ。(본서는 어구의 적절한 뜻과 용법을 알기 쉽게 습득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전체적으로 문답체를 사용하였으며, 일상생활 회화를 이곳에 다 실을 수는 없으니 교수자가 어구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강을 해 주기 바란다.)

一、發音及四聲の習得に便せんがため卷首に北京官話發音表及北京官話聲音編添ふ。

(발음 및 4성 습득의 편의를 위하여 책머리에 北京官話發音表 및 北京官話 聲音編을 첨부하였다.)

一、發音の表示法は大体に于て中華民國教育部審定の國語に于ける注音字母の綴法に則り改正を加へたるも羅馬字を以て之を表はすときは誤解し易き点あるが故に隨意參酌を加へたり但し從來用ひられたる注音法は括弧を施こし之を其下に并記し置けり。

(發音表의 발음 표시는 中華民國 教育部 심의 國語 注音字母 철자법 규정 개정 내용을 추가시킨 방법을 사용했다. 로마자 표기를 표에 같이 둔 것은 잘못이 없도록 보조하고자 함이니 수시로 참조하기 바라며, 단 종래에 사용하던 주음법은 괄호를 쳐서 병기하였다.)

一、本集中に附せる四聲の記号は第一聲(上平)は字の左脚に第二聲(下平)は左肩に第三聲(上聲)は右肩に第四聲(去聲)は右脚に圈点を施して之を表はし區別を要する有氣音には黒点を附せり。

(본서에서 4성의 표시는 1성은 글자의 좌측 아래에 2성은 글자의 좌측 위에, 3성은 글자의 우측 위에, 4성은 글자의 우측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내었고, 有氣音의 구별은 동그라미를 까맣게 칠하는 것으로 하였다.)

卷尾に名詞集を附す。

本集の編纂は本書院講師朱蔭成講師述功前教授松永千秋同眞島次郎専ら之を担任して大正元年八月稿を起せしに翌年七月支那第二次革命の兵燹に罹りて桂墅里の學舎烏有に歸せし際原稿の一部を焼失し三年六月に至りて稿漸く成を告り書を剞劂に附して諸生に頒つを得るに至れり。

大正十四年六月第五版を發行するに當り時勢の進展言語の進化本院

學年歷の改正等に鑑み多少訂正を加へたり。

(권말에 명사집을 부록으로 하였다.)

본서의 편집은 본 書院의 강사인 朱蔭成과 述功, 前 교수인 松永千秋와 眞島次郎이 주로 담당하였고 大政元年(1911) 8월에 원고를 쓰기 시작하였으나 다음해 7월에 중국 제 2차 혁명(1912년 신해혁명) 와중에 기숙사가 불에 타 일부 원고가 소실되므로 대정 3년(1914) 6월에야 비로소 탈고하였다. 대정 14년(1925) 6월 제5판이 발행되었을 때 개정을 하면서 당시 중국 정세의 진전과 언어의 변화 및 본원 학년체계의 변화 등을 고려하였다.)

一、昭和五年四月第八版を發行するに當り略全篇に亘り聊か訂正を加へ「延醫診治」「問慰疾病」「飡粹主人」「飭扑洒掃」「顧用廚役」の五課を第二集へ移したり尙ほ重讀すべき字には各夕その右側に所謂「重念(Intonation)」の符号を附し以て一夕口授するの煩と時間とを省き得るに便せり。

右「重念」符号は本院講師朱蔭成同程朴詢教授熊野正平同鈴木擇郎を委員とし合意の上決せるものなり。

(소화5년(1930) 4월 제8판이 발행되었을 때 “延醫診治” 등 다섯 과는 제2권으로 옮겨 실었고, 아울러 重讀을 요하는 글자는 오른쪽에 짧은 가로선을 그어 소위 重念(Intonation) 부호를 부가 표시하여 시간을 들여 일일이 하나씩 가르치지 않아도 되게 하였다. 重念 부호는 본원의 강사인 朱蔭成과 程樸詢, 교수인 熊野正平, 鈴木擇郎 위원의 합의 하에 결정된 사항이다)

昭和五年四月

上海徐家匯虹橋路 東亞同文書院に於て 編者識

위의 내용을 근거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① 《華語萃編(初集)》은 東亞同文書院 제 1학년용 北京官話 교과서로써, 東亞同文書院이 비록 上海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교재에 사용된 어휘는 너무 고상한 표현이나 속된 표현은 피하고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간단한 문답체의 북경 구어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발음 및 4성 습득의 편의를 위하여 책머리에 北京官話發音表 및 北京官話聲音編⁶⁾을 첨부하였으며,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로마자도 함께

6) 凡例에서는 “北京官話發音表” “北京官話聲音編” 라고 쓰여져 있으나, 본문 내용에서는 “華語發音表” “華語聲音編”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병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北京官話發音表의 발음 표기는 개정된 中華民國 교육부 심의 國語 注音字母 철자법 규정에 따랐으며, 작은 동그라미를 사용하여 각각의 성조를 표기하였다. 제1성은 글자의 좌측 아래에 제2성은 글자의 좌측 위에, 제3성은 글자의 우측 위에, 제4성은 글자의 우측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有氣韻은 동그라미를 까맣게 칠하여 구별하였으며, 重讀을 요하는 글자는 오른 쪽에 짧은 가로선을 그어 소위 重念(Intonation) 부호를 부가하여 표시하였음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이 책의 편집은 〈東亞同文書院〉의 강사인 朱蔭成과 述功, 교수인 松永千秋와 眞島次郎이 주로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책의 원고는 大政元年(1911년) 8월부터 쓰기 시작하였으나, 다음해 7월 중국 제 2차 혁명(1912년 신해혁명) 와중에 기숙사가 불에 타는 바람에 일부 원고가 소실되어, 대정 3년(1914년) 6월에야 비로소 탈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균관대학교 소장본 맨 뒷장을 살펴보면 이 책이 실제로 인쇄를 거쳐 출판된 시기는 대정5년(1916년) 7월 10일 발행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대정 14년(1925년) 중국 정세의 진전과 언어의 변화 및 東亞同文書院의 학년 체계가 3년에서 4년으로 변화됨을 고려하여 그 해 6월 제5판을 개정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華語萃編(初集)》은 1936년 9월 제13판이 발행될 때 각 과의 난이도를 재심하여 본문의 순서를 바꾸는 전면적인 수정을 거쳤다. 본래 책 끝에 첨부하였던 부록 〈名詞集〉을 따로 별책으로 만들었다.⁷⁾

《華語萃編(初集)》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과 수사로 시작하여 제2과에서 제8과까지는 전후 맥락 없이 내용이 조금씩 길어지는 散語簡單對話이다. 핵심내용인 제9과부터 제58과까지는 유학생을 포함한 일본인이 중국에서 원활히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회화들로서, 일본 민간인의 당시 중국 생활상이 잘 나타나 있고, 일본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인에게 일을 잘 지시하기 위한 표현까지도 망라되어 쓰여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제에 따라 교제, 상거래, 학업,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교통, 통신, 풍속, 습관 등으로 나누어

7) [日]六角恒廣 著, 王洪順 譯 《日本中國語教育史研究》, 232쪽.

볼 수 있다.

2) 《華語萃編(初集)》에 나타난 사회문화상

중국은 1911년 辛亥革命으로 중국의 마지막 봉건왕조인 청나라가 무너지고, 동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이 건국되었다. 새로운 체재하의 정부가 들어선 1912년 이후 약 10여 년간은 정치, 경제, 사회, 사상부분에서 갈등과 더불어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창조적 시기였다.

본고의 저본인 《華語萃編(初集)》은 大政元年(1911) 8월에 원고를 쓰기 시작하였으나, 1912년 기숙사가 불에 타는 바람에 일부 원고가 소실되어 대정 3년(1914) 6월에야 비로소 탈고되었다. 이렇듯 《華語萃編(初集)》 출판은 시기적으로 중국이 역사적으로 전제체제가 종결되고 공화제가 출범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이 교재를 통해 소용들이 치는 당시의 사회문화상을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며,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던 상해의 일본인 중국어해의 교육기관 〈東亞同文書院〉에서 펴낸 교재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먼저 이 교재의 대화체로 이루어진 본문의 내용과 교재 뒤에 부록으로 실린 단어집에 나타난 어휘들을 통한 당시의 의생활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의생활

각 국의 복식 문화는 그 나라의 과학기술의 발전, 생산력, 사회제도, 종교, 사회계층, 정치권력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각 시대와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청말에 이르러 특히 아편전쟁 이후 서양문물이 본격적으로 수입되면서 복식제도에 있어서도 개혁의 요구가 대두되었으나 辛亥革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변발과 번거로운 의관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전족 등 여성을 속박하는 풍속도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변발을 고수하다 강제로 머리를 잘리는 등 신·구의 갈등은 있었지만, 문호가 개방되면서 점차 중국에 들어온 서양인들이나

유학생들을 통하여 서구 복식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인들 가운데는 양복을 입거나 전통복식도 개량을 거쳐 새로운 양식을 창출해 내는 문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즉 이때부터 중국은 전통복식과 서양복식이 혼재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수천 년에 걸친 봉건왕조의 공고했던 복식제도가 격심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⁸⁾ 이렇게 변모하는 복식문화상은《華語萃編(初集)》에 아주 잘 드러나 있다. 그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모습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머리스타일은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당시의 머리스타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① 머리스타일

중국 명나라가 붕괴되고 새로운 왕조인 청나라는 군벌이나 반란 지도자에 의해 서가 아니라 중국 본토 북동쪽의 구릉 숲과 평원에서 살던 만주족 족장들에 의해 건국되었다.

당시 만주족의 정사를 도맡아 처리하던 도르곤(多爾袞: 누르하치의 14대 子)은 1645년 7월8일 예부를 통해 “10일 이내에 모두 머리를 밀도록 한다. 만약 머리칼이 아까워 저항하는 자가 있으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변발령을 내린다. 변발이란 머리 정수리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깎은 후 정수리 부분의 머리를 땀아 내린 것을 말한다. 多爾袞이 이렇게 변발령을 하달한 까닭은 “생활방식이 다르면 결국 ‘다른 마음’을 품게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⁹⁾ 즉 변발령을 통하여 정복자에 대한 복종과 불복종의 의지를 한 눈으로 식별하기 위해서였다. 이리하여 北京뿐 아니라 다른 省에서도 명령이 도달한 후 열흘 안으로 모두가 다 이 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반대의 뜻을 피력하는 상주문을 올리는 관료는 가차 없이 사형에 처한다고 하였다.¹⁰⁾

8) 중국어문학연구회, 《중국문화의 이해》, 471-472쪽 참조.

9) 匪石, 《野獲一夕話》, 《浙江潮·第二期》, 1-4 쪽, 〈辮髮에 얽힌 역사 그리고 魯迅〉, 271쪽 재인용.

10) 필립 쿤 저, 이영옥 역, 《영혼을 훔치는 사람들-1768년 중국을 뒤흔든 공포와 광기》, 94-95쪽, 〈辮髮에 얽힌 역사 그리고 魯迅〉, 271쪽 재인용.

그러나 1911년 辛亥革命의 발발로 2000년간 지속되었던 황제 통치체제가 무너지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중화민국이 탄생함과 동시에 260여 년 동안 청나라의 상징이었던 변발도 세계무대에서 그 자취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孫文이 주도한 辛亥革命은 전통사회와 결별하고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지향하는 첫 걸음이었다. 辛亥革命을 주도한 孫文조차도 “1896년 변발을 자르고 양복을 입기 시작했다”고 한다.¹¹⁾ 변발의 금지와 부녀자의 인권을 억압해 왔던 전족의 금지 조치는 중국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렇게 변화된 머리스타일과 관련된 내용이 1911년 辛亥革命을 거쳐 1914년 탈고 된 《華語萃編(初集)》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제44과(新式粧梳)

主: 我的頭髮長了鉸鉸罷。

(주인: 내 머리카락이 자랐으니 좀 잘라주게.)

待詔: 您鉸甚麼樣式的。

(종업원: 어떤 스타일로 잘라드릴까요?)

主: 我叫不出名兒來, 按時興樣兒鉸罷。

(주인: 이름은 잘 모르겠나만 유행에 맞추어 잘라주게.)

待詔: 是, 是。

(종업원: 예, 예!)

主: 貴國解革命之後, 不多兩年, 男人們大概都鉸了頭髮了, 女人們梳的頭, 也改變了不少了。

(주인: 자네 나라는 혁명(신해혁명) 이후 2년도 채 안 되어 남자들이 대부분이 다 머리를 잘랐고 여자들의 머리 역시 많이 바뀌었네.)

待詔: 可不是麼, 乍一改的時候兒, 都梳宮粧頭, 後來又換了鮑魚頭了, 近來最興時的是兩種埃司頭, 一種是豎着梳的, 一種是橫着梳的, 差不多時髦人都梳的是這兩種了, 還有熱心歐化把頭髮燙黃了的, 成心燙的曲曲灣灣彷彿像腦袋上頂着一團亂草似的, 甚至於也有把頭髮鉸了去的, 真是奇形怪狀, 可笑的很了。

(종업원: 그러게 말입니다. 막 변하기 시작했을 때는 모두 宮粧頭(궁중머리)로 빗었는데, 나중에 또 전복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근래

11) 패트리샤 버클리 에브리 저, 이동진·윤미경 역,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287쪽.

에 최신 유행은 두 종류의 埃司형인데, 하나는 세로로 땡아 올리는 것, 또 하나는 가로로 땡아 올리는 것 입니다. 대부분 몇 줌 부리는 사람들은 모두 이 두 종류로 유행을 따르죠. 이 두 가지 머리 유형 외에 또 유럽 사람처럼 머리를 파마하거나 구불구불 꼬아서 마치 머리 위에 잡초 없은 것 같은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머리카락을 기형적으로 자르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웃겨요.)

主: 說的是哪, 可是上海這兒女人們拿頭髮蟠在後頭的叫甚麼頭?

(주인: 그러게 말어요, 그런데 여기 상해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돌돌 말아 뒤에 묶던데 그건 뭐라고 하는가?)

待詔: 那叫蘇州頭, 不帶燕尾兒的叫風涼頭。

(종업원: 그것은 소주(蘇州)형이라고 부릅니다. 제비꼬리를 꽂지 않은 것은 風涼형이라고 하고요.)

主: 現在北平婦女們梳的頭, 也和這兒一樣?

(주인: 지금 북경 여자들이 하는 머리는 여기와 똑같은가?)

待詔: 原先是不一樣, 滿人裡頭都是梳兩把兒頭, 漢人裡頭是梳蘇州纂兒, 這幾年滿漢的粧梳都一樣了, 又因為交通便利的關係, 所以和上海的婦女, 也沒什麼分別了。

(종업원: 원래는 달랐습니다. 만주족은 두 갈래로 머리를 땡았고, 한족은 소주형으로 머리를 틀어 올리는 것이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만주족과 한족의 머리 스타일이 모두 같아졌습니다. 게다가 교통이 편리해진 이유로 상해의 여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졌습니다.)

主: 是了。

(주인: 그래요)

위의 손님과 종업원의 대화체는 당시 유행하는 머리스타일을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辛亥革命 이후 2년 새에 남자들은 모두 머리를 자르고 여자들의 머리 모양도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들의 머리 모양이 막 변하기 시작했을 때는 모두 富粧頭(궁중머리)로 하다가, 조금 지나서는 궁녀들의 머리 모양인 鮑魚頭(전복모양 머리)를 하더니 근래에 최신 유행은 埃司頭(8자형 머리, 여자들이 아라비아 숫자 8자형으로 結髮 한 것으로 民國 중기에 매우 유행했음)로 가로 또는 세로로 8자형으로 머리 땡기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럽 사람처럼 머리를 파마하거나 구불구불 꼬아서 마치 머리 위에 잡초 없은 것 같은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

머리카락을 기형적으로 자르는 사람도 있어 상당히 우스꽝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머리의 뒷부분에 둥글게 묶고 비녀를 꽂는 蘇州式 쪽머리, 묶지 않는 머리인 風涼頭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만주족은 원래 두 갈래로 머리를 땄었고, 한쪽은 소주식으로 머리를 틀어 오렸는데 최근 머리 스타일이 같아졌고, 게다가 교통의 편리와 잦은 왕래로 인하여 북경이나 상해 여자들의 머리 모양이 같아졌음을 알 수 있다.

② 옷 스타일

《華語萃編(初集)》 부록 제6과 衣屢首飾類(의류와 악세서리) 단어집과 《華語萃編(初集)》 제47과(中外衣料)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중국에서는 서구 복식의 영향을 받아 양복을 입거나, 전통복식도 개량을 거쳐 새로운 양식을 창출하는 등 중국과 서양복식이 혼재되어 있는 복식문화에 대해 알 수 있다. 제복, 레인코트, 셔츠, 치마, 바지, 모피 옷 등 다양한 의복들과 중국 고유의 전통의상인 마고자, 헵포, 면포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록 제6과 衣屢首飾類에 열거된 다양한 의복에 관한 어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便服 보통입는 옷, 평상복 중국식옷
 洋裝 양복
 制服 제복
 皮衣 모피나 가죽으로 만든 의복, 털가죽 옷
 大衣 외투
 小衣 속바지, 속옷
 雨衣 비올 때 입는 코트
 襯衣 셔츠
 裙子 치마
 袴子 바지
 汗衫 속옷, 내의

특히 중국 고유의 전통의상에 관련된 어휘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褂子 중국식 홀저고리
小褂 중국식 적삼
朝服 관원이 조정에 나아가 하례할 때 입던 예복
袍子 소매가 길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중국고유의 긴 옷
皮袍 모피로 안을 댄 중국고유의 긴 옷
夾袍 헝포, 겹면과 안면이 같으며 숨을 넣어 만든 옷
綿袍 면포, 헝포의 다른 말

당시 중국에서는 치파오, 장삼, 중산복, 교복, 양복, 차양모자, 제복 등이 유행했다. 중국의 평민 남자들은 주로 장포(長袍), 마괘, 중산복(中山服), 양복 등을 입었으며 계층, 연령, 직업에 따라 복식의 차이가 있었다. 장포에는 마괘와 과피소모(瓜皮帽)를 쓰고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는 초기에는 헐렁했으나 점점 좁아지고 띠를 매었으며 신발로는 포혜나 면화를 신었다. 양복에는 가죽구두와 예모를 썼는데 둥근 형으로 넓은 차양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젊은 학생들은 주로 목깃이 세워져있고 가슴에 주머니가 있는 일본 제복과 비슷한 복장을 했다. 여기에서 이 제복을 기초로 발전시킨 것이 중산복(中山服)이다. 이는 중화민국을 건국한 손문이 고안하였기 때문에 그의 호인 '中山'을 따서 붙인 이름이다. 중산복의 저고리에는 5권 분립을 상징하는 5개의 단추, 소매 부리에는 삼민주의(三民主義)를 상징하는 3개의 단추를 달았다. 중산복은 옷깃과 포켓이 독특한 것이 특징이다. 목 위로 살짝 올라오는 입령을 달아 와이셔츠를 입은 것 같은 효과를 내었고, 상의에는 위 아래로 네 개의 아웃사이드 포켓을 달았다. 또한 하단에는 주름을 잡은 아코디언 포켓을 부착하여 수납 기능을 높였다.¹²⁾

한편 1910년대의 중국 여성들 사이에는 개화기 패션이 유행하였다. 이는 유학생과 중국 미션 스쿨 여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상의는 품이 좁고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우임삼과 우임오이고, 이 소매는 팔꿈치 위로 올라올 정도로 짧거나 소매로 갈수록 넓어지는 나팔 모양의 7부 길이였다. 그리고 하의는 초기에는 복사뼈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었지만 점차 짧아져 종아리까지 올라오게 되었다.¹³⁾

12) 화메이, 『복식』, 도서출판 대가, 2008, 103쪽.

13) 화메이, 『복식』, 도서출판 대가, 2008, 104쪽.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한 복식은 치파오(旗袍)다. 치파오는 가슴 부분은 딱 맞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넓어지는 A라인이며, 우입에 목깃은 둥글다. 또 좌우를 터서 걸거나 노동하기에 편리하고 말을 타기에도 적합했다.¹⁴⁾ 뿐만 아니라, 중상류층 여성들은 하이힐, 원피스 등을 입고 금, 은, 옥, 비취 등 각종 보석으로 머리를 장식하였다.¹⁵⁾

다음은 제 47과 한 일본인과 중국인의 대화로, 당시 일본인과 중국인의 근대 복식에 관하여 알 수 있다. 그 예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47과(中外衣料)

東: 這身衣裳倒好看是甚麼材料的?
 (일본인: 이 옷은 근사한데 무슨 재료를 썼는가?)
 中: 這是鐵機緞的, 花樣兒太時髦了罷
 (중국인: 이것은 鐵機緞(기계로 짠 비단)이라네. 디자인이 너무 튀지 않나?)
 東: 不, 很雅緻的, 您這衣裳是便衣兒, 是禮服?
 (일본인: 그렇지 않고 너무 고상하다네. 이 옷은 평상복인가, 아니면 예복인가?)
 中: 上頭的是馬褂兒, 裡頭的是棉袍兒, 這算是禮服的一種, 就是在先的官衣兒袍褂的變象, 現時還有一種西裝燕尾服的禮服哪。
 (중국인: 위의 옷은 마고자이고, 안의 것은 중국식 슌 두루마기로 예복의 일종인데 예전의 관복의 마고자의 변형이라네. 지금은 또 서양 연미복과 같은 예복도 있다네.)
 東: 是了, 我們敝國的禮服, 除了西裝之外, 還有我們本國的服制, 上頭穿的意件彷彿像褂子似的, 可是圓領子, 下頭的一件和裙子似的, 就是古人說的上衣下裳了, 貴國人也愛穿帶花道兒的衣裳麼
 (일본인: 그렇군. 우리 일본인의 예복은 서양 예복 외에도 우리 본국의 예복이 있네. 윗도리는 마고자와 같은 것을 입지만, 카라는 둥글지. 아랫도리는 치마 같은 것이라네. 옛 사람들이 말하는 아래 위가 따로 분리된 옷이라네. 자네 나라 사람도 꽃무늬가 들어가 있는 옷 입기를 좋아하는가?)

14) 이재정, 『의식주를 통해 본 중국의 역사』, 가람기획, 2005, 134쪽.
15) 화메이, 『복식』, 도서출판 대가, 2008, 99쪽.

- 中: 也有, 可是小衣裳
(중국어인: 있기도 하네. 하지만 그건 소의상이라네.)
- 東: 那麼長衣裳呢
(일본인: 그러면 장의상은 어떠한가?)
- 中: 綢緞的是帶花兒的多, 布糙衣裳是素面兒的
(중국어인: 주단(비단과 공단)으로 된 것은 꽃무늬가 많네. 투박한 무명으로 만들어진 옷은 무늬가 없는 단색이라네.)
- 東: 愛穿甚麼顏色兒呢
(일본인: 어떤 색깔의 의상을 좋아하는가?)
- 中: 大概都是靑的藍的灰色的的月白的
(중국어인: 대개는 청색, 남색, 회색, 옅은 남색의 옷을 선호하지.)
- 東: 用甚麼裡子呢
(일본인: 안감은 무엇을 사용하는가?)
- 中: 綢緞衣裳都是用十兩綢子, 也有用綾子的, 那布衣裳是用竹布和細洋布的多。
(중국어인: 주단의상은 모두 얇은 명주를 사용하고, 능을 사용한 것도 있네. 그 무명옷은 리넨과 모슬린으로 만든 것이 많다네.)
- 東: 皮衣裳是穿什麼皮的多哪
(일본인: 가죽옷은 어느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는가?)
- 中: 羊皮多, 有羔子的有老羊的, 直毛兒的是狐皮、貂皮、水獺、灰鼠什麼的
(중국어인: 양 가죽이 많네. 새끼 양도 있고, 늙은 양도 사용하지. 고급 모피로는 여우, 담비, 수달, 친칠라가죽 등이 있네.)
- 東: 夏天的衣裳是什麼材料的?
(일본인: 여름의 옷은 무슨 재료를 사용하는가?)
- 中: 紗的、羅的、生絲、夏布甚麼的, 您這身洋衣服是在這兒做的麼?
(중국어인: 싱글게 짠 깎으로 된 것, 비단으로 된 것, 생사, 모시 등등 다양하다네. 이 양 가죽은 옷은 여기에서 만든 것인가?)
- 東: 不是, 是在我們東京做的, 他們說這是最興時的樣子, 可不知道究竟怎麼!
(일본인: 아닐세. 우리 도쿄에서 만들었네. 그들은 이것이 가장 유행하는 디자인이라고는 했는데 대관절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
- 中: 啊, 怪不得穿着這麼得樣兒哪!
(중국어인: 아, 어쩐지 입었을 때 근사하다 했네.)
- 東: 我本來要做漂亮點兒顏色, 沒想到把樣子看錯了, 倒弄成這麼老乾的了。

(일본인: 나는 원래 화사한 색깔을 좋아하는데 뜻밖에도 내가 건분을 잘 못 봐서 이렇게 노인네 같은 옷으로 되어버렸네.
 中: 顏色過嬌嫩了不耐臟, 老乾點兒禁湛。
 (중국인: 색깔이 너무 열으면 쉽게 더러워지지만, 좀 수수한 색깔은 좀 고상하게 보이긴 하지.)
 東: 禁湛是禁湛, 常穿了風吹日晒的也是落色。
 (일본인: 고상하긴 고상한데, 바람이 불고 햇볕에 쬐이면 색이 바랜다네.)
 中: 那自然的, 洋裝很費錢罷。
 (중국인: 그거야 당연하지요. 양복은 매우 돈이 많이 들지요.)
 東: 是的, 年年兒總得添補, 況且我是灑脫慣了, 穿起洋服來很不自在。
 (일본인: 그렇게 말일세. 매년마다 어쨌든 새로운 것을 구비해야하고, 또 나는 소탈한 사람이라 양복을 입으면 그다지 편하지 못해요.)
 中: 拉拉手兒, 我也是這麼個脾氣, 我看還是穿自己本國的衣裳好。
 (중국인: 우리서로 마찬가지로, 나 역시 이러한 성격이라 내가 보기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옷을 입는 것이 나을 것 같네.)
 東: 不錯, 夏天穿的衣服尤其是我們日本的好了。
 (일본인: 맞네. 여름에 입는 옷은 특히 우리 일본의 것이 좋지.)
 中: 是是。
 (중국인: 맞네.)

이 대화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당시의 일본인과 중국인의 전통 옷차림, 근대 복식의 종류와 옷감의 재료, 유행하는 색깔의 옷 등의 특징들을 엿볼 수 있다.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중국 사람들은 辛亥革命과 더불어 문화의 새 바람이 불자, 어느덧 馬褂(중국 마고자)에 棉袍(중국 솜 두루마기)를 받쳐 입는 것은 일종의 예복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그건 이미 지나간 '중전의 관복'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요즘에는 예복으로 연미복을 입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예복은 서양의 양복 말고도 일본 전통의 옷차림이 있는데, 전통복은 중국 저고리와도 비슷하지만 옷깃이 둥근 옷옷과 치마 비슷한 아래옷을 입는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인이 즐겨 입는 색은 靑(검정), 藍(남색), 灰(회색), 月白(열은 남색)이며, 견직물 옷은 十兩綢子(얇은 명주)와 綾子(능라)를 주로 쓰는데 그 안감은 竹布(린네르)나 西洋布(모슬

린)을 많이 사용하고, 가죽털옷은 양털가죽이 많은데 어린양과 늙은 양의 가죽이 다 사용되고, 또 고급 모피 털로는 여우, 표범, 수달, 친칠라(灰鼠) 등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름옷감은 紗(갑, 명주실로 바탕을 좀 거칠게 짠 비단), 羅(얇고 성기게 짠 명주), 生絲(생사), 夏布(모시)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각기 자기 나라의 예복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결국 중국인이나 일본인 모두 자기나라 옷이 편하며 양복은 특히 여름에 불편하다며 자국의 옷을 선호함을 나타냈다.

③ 유니폼

본문 제31과, 제32과의 내용에 따르면 남경에는 당시 中西旅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의 종업원들은 모두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묘사되어 있다.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제31과(車中閑話)

乙: 我聽說南京的客棧是中西旅館最好, 可不知道究竟怎麼樣?

(을: 남경의 호텔 중 中西旅館이 제일 좋다고 들었는데, 대관절 어떨지 정말 모르겠어요.)

甲: 可是日本人是住中西旅館的多大概總不錯吧, 有各棧房裏接客的夥計都穿著號衣, 您招呼他來就帶您去了。

(갑: 일본인 투숙객이 中西旅館에 많다는 건 아무래도 꽤 괜찮을 거예요. 그 호텔에서 손님을 맞는 종업원들은 모두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당신이 그 종업원을 부르면, 그가 당신을 데려다 줄 거예요.)

위의 갑과 을의 대화를 통해 약 100년 전에 당시의 호텔에서도 벌써 종업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화 가운데에서 '일본인이 머무르는 곳이라면'하는 대화를 통해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매우 대단함이 엿보인다.

④ 신발

《華語萃編(初集)》 책 끝에 첨부된 부록 <名詞集>에는 당시의 다양한 신발에 관한 단어들 이 실려 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靴子(장화)
- 官靴(목이 긴 儀式用 신발)
- 快靴(얇고 부드러운 가죽으로 바닥을 댄 걸기에 편한 중국식 단화)
- 皮靴(가죽 장화)
- 雨靴(장화)
- 壽靴(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신발)
- 鞋(신발)
- 雙臉兒鞋(중국 형겔신의 하나로 두 족의 형겔을 붙여 신을 만들므로
써 신코 부분에 봉합선이 나 있는 것)
- 單臉兒鞋(一道臉兒)(중국 형겔신의 하나로 신코 부분의 형겔을 꿰맨 봉
합선이 보이지 않게끔 가죽을 덧붙이거나 장식을 한 것)
- 福字履(앞에 박쥐 모양이 새겨져 있는 신발)
- 皮鞋(가죽 구두)
- 油鞋(釘鞋)(비가 올 때 신는 징을 박은 신)
- 夾鞋(겹신)
- 棉鞋(毛兒窩)(솜신, 솜을 넣은 방한화)
- 坤鞋(坤履 女鞋)(여자 신발)
- 鞋拔子(구두주걱)

위의 신발에 관한 어휘를 통하여 당시에 위와 같이 많은 종류의 신발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여성들의 전족(纏足)에 관한 단어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전족(纏足)이란 중국 여자들의 발을 천으로 단단히 묶어 발의 성장을 정지시키는 풍속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정설은 없지만 실제로 전족(纏足)은 唐代에 실시되었다. 큰 발을 부끄럽게 생각하던 宋代를 거쳐 明代에 이르러 발이 큰 여자는 시집도 가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淸初 전족(纏足)에 대한 금지 칙령이 내리기는 하지만 청 중엽에 사회의 부패와 더불어 한족이 아닌 만주족 여인에게까지 확산된다. 전족은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신분의 고귀함과 여성에 대한 미의식 및 남자들에게 성적인 쾌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성적인 의미도 담고 있어, 영육간에 해가 되는 기형적인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풍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다가 1860년대 서양인들이 세운 학교에서 자연스러운 발을 내세우기를 교칙으로 삼는 등 1895년에는 선교사의 부인들이 상해를 중심으로

천족회(天足會)를 만들어 전족의 폐해를 광범위하게 알리기 시작하였다.¹⁶⁾

1912년 1월1일 辛亥革命으로 임시총통으로 선출된 孫文은 남경에서 정식으로 중화민국이라는 혁명정부를 선포하고 몇 가지 혁명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⁷⁾

- a. 아편의 재배 및 흡연금지
- b. 여성의 전족 금지
- c. 가혹한 형벌의 금지
- d. 인신매매, 도박의 금지
- e. 천민신분의 해방

1914년 저술된 《華語萃編(初集)》에는 전족(纏足)이라는 단어조차 사라져 버렸다. 이것은 여성의 전족 풍습이 사라지고 근대적 문물이 전파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⑤ 출장 옷 맞춤 문화

당시에 일본 주인이 재단사를 불러 옷을 맞춰 입는 광경을 엿 볼 수 있는데, 예문은 다음과 같다.

제46과(穿喚成衣)

主: 我要做一身春秋兒穿的西洋衣裳, 你帶着材料兒樣子沒有?

(주인: 봄가을에 입을 수 있는 서양식 의상을 만들려고 한다네. 자네 재료 샘플을 가져 왔는가?)

成衣: 帶着哪, 請您看看, 這路兒薄呢倒不錯, 這是新解英國到的貨。

(재단사: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얇아서 괜찮습니다. 이것은 새로 영국에서 온 물건입니다.)

16) 『중국 근대의 풍경』, 354-359쪽 참조.

17) 『중국사 다이제스트 100』, 353쪽 참조.

主: 啊, 這樣兒材料好是好, 就是顏色兒不大漂亮。
(주인: 아, 이것은 좋기는 좋은데 색깔이 별로네.)

成衣: 那麼這個怎麼樣?
(재단사: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主: 這個還下得去, 花樣兒也好, 顏色也大方, 多少錢一碼?
(주인: 이것은 괜찮군, 디자인도 괜찮고, 색깔 역시 고상한데 한 마에 얼마인가?)

成衣: 九塊。
(재단사: 9원입니다.)

主: 價錢可真不小, 就用這個。
(주인: 가격은 정말 비싸구먼, 이것으로 하겠네.)

成衣: 是, 您請站起來, 量量尺寸。
(재단사: 예, 일어서 주십시오, 먼저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主: 哼, 身長可別太短了, 腰身得肥着點兒。
(주인: 길이는 너무 짧게 하지 말게, 허리는 조금 넉넉하게 해주게.)

成衣: 是了, 底襟要圓的, 要方的?
(재단사: 예, 안감은 둥근 것으로 할 것인가요, 아니면 사각으로 할 것인가요.)

主: 方的好, 袖口兒可要寬着點兒褲子也別太瘦了。
(주인: 사각이 좋겠네, 소매는 조금 넓게 해주고, 바지 역시 너무 끼게 만들지 말게.)

成衣: 是了, 得了。
(재단사: 예, 알겠습니다.)

主: 還有一層, 你們中國的成衣做西洋衣服, 抬肩總是瘦穿着很憋拗的。
(주인: 또 자네 중국은 서양복을 만들 때, 어깨를 항상 좁게 하는데, 그러면 너무 갑갑할 것이네.)

成衣: 是是, 有數兒了, 您不做大衣服?
(재단사: 예, 예, 방법이 있습니다. 겹옷은 안 지으십니까?)

主: 我先不做哪, 這三件一共多兒錢?
(주인: 우선은 하지 않겠네, 그러면 이 3벌에 전부 얼마인가?)

成衣: 您給三十三塊錢罷。
(재단사: 33원 주십시오.)

主: 你算的太多了罷?
(주인: 너무 많은 것 아닌가?)

成衣: 不敢多算您的一分錢一分貨, 您等做得了穿出去比一比就知道了。
(재단사: 감히 더 부르겠습니까? 옷이 완성되어 입고 나가셔서 비교

해 보시면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主: 價錢可是由著你算, 手工可得做的好, 鈕子什麼的可都要時興的。

(주인: 가격은 자네 말대로 하겠네. 작업은 잘해주어야 하네. 단추 같은 것도 모두 유행에 따라야 하고.)

成衣: 是了, 您不用囑咐了, 總稱您的心我回去了您納。

(재단사: 알겠습니다.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어르신의 말씀 다 알아 들었으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재단사와 주인의 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하인의 안내로 들어온 재봉사에게 춘추 양복을 맞춤 받는 설정으로 시작되는 이 대화를 통해, 당시에는 재단사를 집으로 불러 옷을 맞춤 수 있었음 알 수 있다. 또한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영국 옷감이 질 좋은 옷감으로 여겨졌으며, 변화하는 중국에서는 새로운 문화와 더불어 의복에 다는 단추까지도 새롭게 유행하는 모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주인의 말을 통해 볼 때 당시의 중국 사람들은 서양복을 만들 때, 어깨를 항상 좁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교재는 특별히 중국에서 생활하는 혹은 생활하기 위한 일본인을 위해 편찬된 교재이다. 대화체 중 일본인은 중국인과의 대화들이 상당히 지시적이고 권위적이며 상당히 까다로운 걸 발견할 수 있다. 본문 제44과에서도 중국인 이발사와 일본 손님과의 대화 중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대화의 내용은 이러하다. 이발소에서 일본인이 콧수염과 턱수염을 다듬고 그가 원하는 司丹康표 머릿기름이 없자 이발소에 준비된 凡司林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화장수만 바르고 등 안마는 받지 않고 가는 모습도 이러한 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⑥ 세탁문화

세탁문화에 대한 내용이 이 교재 제45과에 등장한다. 중국인 세탁소 주인과 일본인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45과(曷澣曷否)

主: 誰叫門哪?

(주인: 누가 문을 두드리는가?)

洗: 我是洗衣裳的您納。

(세탁: 저는 세탁소 주인입니다 어르신.)

主: 我上回叫你洗的衣服還沒洗得麼?

(주인: 내가 지난번 자네에게 맡긴 옷은 아직 안 되었는데?)

洗: 得了, 今兒給您帶了來了, 您點點件數兒對不對。

(세탁: 되었습니다. 오늘 가져왔습니다. 개수를 세어 보십시오.)

主: 件數兒倒對了, 怎麼你們洗的老是不漂亮? 你看看這小褂兒上頭的泥所沒洗掉。

(주인: 세어보니 맞구먼. 근데 어찌 자네들이 세탁해 온 것은 늘 깨끗하지 아니한가? 자네 보게. 이 적삼위의 얼룩이 그대로 있지 않은가.)

洗: 我們可是不敢疏神的, 大概是件數兒多了也許有搓不到的地方兒。

(세탁: 저희들이 어찌 소홀히 하겠습니까. 아마 개수가 많아서 제대로 닦여 지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主: 你這說的不像話, 我洗一件給一件的錢, 怎麼件數兒多了就不在意了麼。

(주인: 그게 말이 되는가. 나는 한 벌 한 벌로 세탁비용을 내는데, 어떻게 개수가 많다고 정성껏 하지 않는 건가.)

洗: 您要是等得及, 拿回去再給您洗洗去。

(세탁: 만약 괜찮으시다면, 도로 가져가서 다시 세탁해 드리겠습니다.)

主: 喝, 這塊兒也給洗破了, 當初不是囑咐過你們材料蕭薄別撒開了使勁兒搓麼, 怎麼老不聽話呢?

(주인: 허 이곳도 잘못 세탁해서 구멍이 났네. 처음부터 여러 번 당부했었지 않은가. 이 재료는 얇아서 힘껏 비비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늘 말을 듣지 않는가?)

洗: 這實在對不起您了, 請您包涵着點兒罷, 下回多留神就是了。

(세탁: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主: 你幹甚麼瞞着不早說呢?

(주인: 자네는 어째서 속이면서 처음부터 말을 하지 않았는가?)

洗: 不是瞞着, 我忘了和您提了。

(세탁: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께 말씀드리는 것을 잊었습니다.)

主: 你打算含糊下去呀, 往後別這麼要奸, 我們不是睜眼兒的瞎子。

(주인: 자네가 얼렁뚱당 넘어가려 했군. 다음부터는 이렇게 야비하게 굴지 말게. 우리가 눈 뜬 장님이 아닐세.)

洗: 那兒的話呢, 您是老主顧了, 我們不敢欺哄您納。

(세탁: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르신께서는 단골손님이신데 저희가 어찌 감히 속일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

主: 你知道認錯兒就是了, 下回再這麼樣兒可不行, 還有你漿的老是不骨力, 這都是粉子太稀的緣故, 領子帶了一天就矮了。

(주인: 자네가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 되었네. 다음에도 이러면 정말 안 되네. 또 자네는 풀 먹이는 게 항상 뺏뺏하지 않은데 이것은 모두 가루를 너무 약하게 넣었기 때문일세. 하루만 입으면 칼라가 수그러드네.)

洗: 是, 明兒給您多用點兒粉子漿再好好兒的拿慰斗一慰就蹶正了, 您今兒有洗的沒有?

(세탁: 예. 내일부터는 가루분을 더 넣고 잘 다려서 팽팽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탁하실 것 있습니까?)

主: 有, 換下來的很多哪, 都在那兒堆着了, 你數數件數兒拿了去罷。

(주인: 있네. 벗어 놓은 것이 매우 많은데 모두 저기 쌓아놓았네. 자네가 숫자를 세어보고 가져가게.)

洗: 是, 一共是九件。

(세탁: 예. 전부 9벌입니다.)

主: 對了, 那裡頭可有沒寫名字的, 小心別弄錯了。

(주인: 맞네. 안에 이름을 써 놓지 않았으니 틀리지 않게 조심하게.)

洗: 錯不了您納, 我們都有暗記兒的, 您請放心罷。

(세탁: 틀리지 않을 겁니다. 어르신 우리들이 모두 속에다 기록해 놓거든요. 안심하십시오.)

主: 你們洗的老是這麼慢, 這回要是還照那麼慢, 下次不叫你們洗了。

(주인: 자네 세탁은 항상 느린데, 이번에도 또 천천히 가져오면 앞으로 자네들한테 맡기지 않을 걸세.)

洗: 我們也不是願意耽誤工夫兒, 因為有個夥計病了所以遲了兩天, 這回洗了就趕着送來。

(세탁: 저희 역시 일부러 늦게 하는 건 아닙니다. 종업원이 병이 나서 며칠 늦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세탁하면 곧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主: 幾兒洗得了呢?
 (주인: 며칠이면 되겠는가?)
 洗: 您等我算算今兒禮拜四趕下禮拜二一定給您送了來。
 (세탁: 제가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 다음 주 화요일에는 반드시 가져 오겠습니다.)
 主: 你這又是搗搗罷。
 (주인: 자네는 그 말만 하지 말게.)
 洗: 真是決不撒謊的。
 (세탁: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主: 好, 我等你禮拜二就是了, 錯了日子我可是不答應你的。
 (주인: 좋네. 내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기다려보세. 날짜를 어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洗: 是了您納。
 (세탁: 예 어르신.)

위의 내용은 방문세탁으로 맡긴 여러 벌의 옷 가운데 한 벌은 얼룩이 가지 않았고 한 벌은 세탁 후 구멍이 났으며 풀 먹인 것은 대충 먹여서 하루만 지나면 풀이 죽었으며 세탁물 회수는 또 너무 느리다는 내용으로, 세탁물에 대한 주인의 매우 불만족한 기분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당시에는 옷에 풀 먹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세탁소가 막 생겨서인지 세탁물을 목요일에 가져가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져오다는 대화로 보아 세탁물 수거가 빨리 진행되지 않았음도 엿 보인다. 또한 일본인의 심중에는 “중국인은 잘 속인다” 고 하는 중국인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 대화를 통해서도 사뭇 중국인에게 함부로 대하며 권위의식에 젖어 있는 일본인의 모습이 투영되어 보인다.

(2) 식생활

각 나라마다 음식문화는 그 나라의 기후, 풍토, 민족성 등에 따라 다양각색의 특징을 가진다. 특히 중국 요리는 광활한 면적으로 인해 뚜렷하게 구분되는 자연 조건에 맞게 다채로운 형태와 특별한 맛을 지닌 요리이다. 그리하여 여타의 다른 나라들이 따라 갈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음식과 맛의 다양함이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이 당초 자국민의 중국어 교육을 위해 상해에 세운 중국어교육 기관(東亞同文書院)에서 1914년 집필해 낸 《華語萃編(初集)》에는 아래의 각 과마다 많은 음식에 관한 어휘들이 등장한다. 특히 상해요리¹⁸⁾는 4대 중국요리 중의 하나로 상해 중국어 교육기관에서 펴낸 이 교재는 어떠한 음식들이 출현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華語萃編(初集)》 부록 제 9과 飲食類에는 각종의 밥, 쌀, 죽, 면, 만두, 과자, 케익, 고기, 완자, 생선, 국, 콩, 견과류, 장아찌, 과일, 술, 기름, 간장, 음료수, 담배 등에 관한 많은 어휘들이 등장한다. 그 중 상해라는 지역 특성 때문인지 34종류에 달하는 각종 생선류에 관한 어휘와 20개에 육박하는 해산물에 관한 어휘들이 나열되어 있다. 각각의 음식관련 어휘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1과 : 蛋糕, 饅頭

제12과: 烤麪包, 海帶菜, 木魚, 醬黃瓜, 醃蘿蔔, 醬豆腐, 小鷄子, 豬肉, 魚, 牛肉, 拿洋蔥, 炒魚, 生魚片兒, 中國醬油

제13과: 魷魚, 蘸醬油, 海蜇拿大蝦米拌一拌, 小螃蟹, 白米飯, 豆兒飯, 鮑魚蘑菇湯醃茄子, 吃撒丁魚

제14과: 罐頭貨, 菓子和魚肉, 波羅蜜, 橘餅, 白糖, 餅乾, 皮酒, 葡萄酒, 太陽皮酒, 白糖

제25과: 北京菜, 酒是喝燒的喝黃的, 燻小鷄兒, 醬汁魚, 噲蝦油爆肚兒, 溜魚片兒, 炒蟹肉, 軟炸腰花兒拌鴨掌, 燴生鷄絲兒, 清炒蝦仁兒

제37과: 鮮菓子

제39과: 江米麪兒做的裡頭有糖餡兒

위의 음식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상해가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유독 해산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海帶菜(다시마), 魚(생선), 生魚片兒(회), 魷魚(오징어), 海蜇(해파리), 大蝦米(말린새우), 小螃蟹(게), 鮑魚蘑菇湯(전복버섯탕), 撒丁魚(정어리), 醬汁魚(물고기를 간장에 절인 것), 噲蝦油爆肚兒(새우향기름으로 볶은 소고기 천엽), 炒蟹肉(게살고기볶음), 清炒蝦仁兒(새우살 볶음) 등이다. 또한 제 14과에는 上海가 당시 서구문물이 가장 먼저

18) '화이양 요리'라고도 부른다. 지역적으로는 상해, 남경, 소주, 양주를 포함한다.

들어온 중국의 제2도시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손님이 식료품가게에서 상인에게 波羅蜜罐頭(파인애플 통조림), 橘餅(꿀이나 설탕에 졸인 꿀), 白糖(설탕), 餅乾(과자), 啤酒(맥주), 葡萄酒(포도주)의 유무와 가격 내지 상표에 대해 묻고, 몇 가지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잔돈을 깎아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예문 중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다.

客：脚下的罐頭貨都是有什么？
 (손님: 지금 통조림은 어떤 물건들이 있나?)
 賈：現在有各樣的果子, 和魚肉什么的。
 (상인: 지금은 각종 과일과 생선 고기 등이 있어요.)

위의 손님과 상인의 대화 내용을 통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미 羅蜜罐頭(파인애플 통조림) 등과 같은 과일 통조림과 생선 고기류의 통조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12과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다.

主：拿洋蔥炒, 魚要買活的, 吃生魚片兒?
 (주인: 양파를 넣고 볶아라. 생선은 회로 먹을 것이니 살아있는 것으로 사오구!)
 主：還有你們天天兒用的是中國醬油罷?
 (주인: 그리고 너희들이 매일 같이 쓰는 것이 중국 간장이냐?)
 仆：是, 就是上海醬園里打的。
 (하인: 예, 상해 간장 점문점에 사온 것입니다.)
 主：啊, 怪不得做的菜味兒都不大好呢, 往後用日本的罷。
 (주인: 어쩐지 만든 요리 맛이 그다지 좋지 않다 했다. 다음부터는 일본 간장을 쓰도록 해라)
 仆：是, 回頭上加藤洋行買去。
 (하인: 예, 돌아 올 때 加藤洋行에서 사올게요.)

위의 대화는 《華語萃編(初集)》이 일본인의 중국 생활을 위해 쓰여졌음이 역력

히 드러나는 문구이다. 일본인이 사시미를 즐기는 식생활이 잘 나타나 있고, 하인에게 중국 간장은 맛이 없으니 다음부터 일본 간장을 사용하라 지시하는 일본우월주의 사고도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주생활

중국의 전통적인 가옥은 대부분 四合院의 모습이다. 이러한 가옥은 보통 크고 작은 방들이 정원을 둘러싸고 있으며, 방과 정원 사이에는 방들을 연결하는 주랑이 있어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사합원의 형태는 明代에 와서 완성되었지만, 중축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건물을 배치하는 사각형 구조는 중국 최초의 도성인 商代의 건물에서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다.¹⁹⁾ 그러나 이 교재는 이러한 중국식 사합원의 가옥구조와는 사뭇 다른 서양식 집에 대해 묘사되어 있다. 제 34과와 제42과에서는 당시 중국이 서구화 되어가면서 전통적인 주거형태보다 서양식의 주거형태를 선호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교재 34과(準備搬家)와 제42과 託組住宅의 관련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사준비

제34과(準備搬家)

僕: 你找到房子了嗎?
 (하인: 방을 구하셨는지요?)
 主: 找好了。
 (주인: 구했네)
 僕: 在什麼地方兒?:
 (하인: 어디 입니까?)
 主: 在新公園左近的地方兒。
 (주인: 신공원 부근이네.)
 僕: 新租的住宅比這邊兒大小?
 (하인: 새로 빌린 주택은 여기보다 큼니까? 작습니까?)

19) 이재정, 《의·식·주를 통해 본 중국의 역사》, 158쪽-162쪽 참조.

主: 間丈兒差不多, 地方兒可很清靜。
 (주인: 규모는 비슷하지만 매우 조용하다네.)
 僕: 也是洋房麼?
 (하인: 또 서양식 집입니까?)
 僕: 是, 前頭院子有草地, 可以打球, 四周的樹林也很多, 空氣最好。
 (주인: 그렇지. 앞 정원에는 잔디가 있어서 공놀이도 할 수 있고, 사방에 나무가 많아 공기가 좋다네)

이 대화를 통해 이 주인은 지금도 서양식 집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이사 갈 집도 정원 앞에 잔디가 있는 사방이 나무가로 가득 찬 서양식 집임을 알 수 있다.

② 주택 세내기

棧房(여인숙 정도의 호텔)에 머물던 甲이 북경에서 세 들어 살 집을 구하는 이야기이다. 乙에게 부탁하여 방 두 칸, 서재 한 칸, 응접실 한 칸, 그리고 주방과 하인방 등이 딸린 2층 양식집에 전등과 수도물이 나오고, 전철과 시장이 가까운 1개월 30兩 가량의 주택을 물색한다. 방세 외에 開門錢(옛날 집을 세들 때 한 달 집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소비조로 집주인에게 내던 돈)이 있고 집세 보증금은 외국인인 경우 없으며 집안 가구는 당분간 빌려 쓸 수 있는 곳으로 乙이 알아봐 준다는 내용이다. 그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42과 託組住宅

甲: 是洋房麼?
 (갑: 서양 집니까?)
 乙: 是洋式的。
 (을: 그렇다네.)
 甲: 幾層樓?
 (갑: 몇 층입니까?)
 乙: 是兩樓兩底。
 (을: 2층이고, 지하도 2층 있네.)
 甲: 電燈自來水都有罷。
 (갑: 전등, 수도 모두 있죠?)

- 乙: 那一定是有的了。
(을: 그건 분명 있을 걸세.)
- 甲: 出入方便不方便?
(갑: 교통이 편리한가요?)
- 乙: 很便當, 出門兒就上電車, 離小茶場也不算遠。
(을: 매우 편리하다네. 문을 나서면 바로 전차가 다니고, 시장도 먼 것은 아니라네.)
- 甲: 那好極了, 不知道一個月是多少房錢。
(갑: 매우 좋은데요. 1개월의 월세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 乙: 那一帶的房子大概得三十兩左右罷。
(을: 그 일대의 방은 대개 30량 전후 될 것이네.)
- 甲: 乍一租下還得有別的花費麼?
(갑: 한 번 빌리고 나면 또 달리 돈 나가야 할 곳이 있나요?)
- 乙: 不過有貼兒開門錢就是僑們北平的打掃錢。
(을: 겨우 문 열어 주는 비용과 우리 베이징의 청소 비용 정도일 것 일세.)
- 甲: 不是有小租兒麼?
(갑: 집세보증금은 있습니까?)
- 乙: 您說的是茶錢麼?
(을: 자네가 말하는 것이 집세보증금 말인가?)
- 甲: 不錯。
(갑: 맞아요.)
- 乙: 有有的, 有沒有的, 可是聽說外國人租房子都不給小租兒。
(을: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네. 하지만 듣자니 외국인이 집을 임대하는 것은 모두 집세보증금은 없다고 하였네.)
- 甲: 電燈自來水是和房錢都在一塊兒麼?
(갑: 방세에 전등과 수도세가 포함된 건가요?)
- 乙: 不是, 那都是另外的。
(을: 아닐세, 그건 별도라네.)

이 예문을 통해 당시에 지하 2층으로 된 서양식 2층집이 있었으며 전등과 수도물이 공급되었고, 지금과는 사뭇 다르게 외국인은 임대보증금이 필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북경은 월세가 한 달에 30량 가량 되었고 본인 집의 청소비용 외에 베이징시의 청소비용을 다 같이 나누어 부담했음을 알 수 있다.

개항 전 상해에는 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대부분의 주민들은 용수나 하천이나 우물에서 얻었다. 조계가 막 생겼을 때 상해의 외국인 거류민들은 각종 하천, 도랑이나 黃浦江, 蘇洲河 어느 곳을 막론하고 수질이 깨끗지 않고 건강에 유해하다고 생각했다. “모래와 진창으로 우물 입구는 매번 불결한 냄새가 났다.”²⁰⁾ 할 정도로 “비릿한 악취가 심했고 질병이 잘 발생했다.”²¹⁾고 한다. 그래서 몇몇 서양 상점들은 스스로 조계 안에 우물을 깊이 파서 직원들에게 공급했다고 한다.

이렇게 조계에 외국인 거류민이 끊임없이 증가함에 따라 식수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1883년 영국조계의 自來水公司가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마시기가 편리해졌으며 위생에도 유익했다고 한다. 그러나 몇몇 중국인들은 수돗물의 질을 의심했으며, 심지어는 물속에 독소가 있으므로 “중국인들은 사용하는 자가 매우 드물 것”으로 생각하였다.²²⁾

③ 전등

다음은 전등에 관한 이야기이다.

《華語萃編(初集)》 제27과(安設電燈)에는 전등설치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내용은 전등회사에 전화하면 직원이 와서 전등을 설치함과 전등 갖의 양식 및 스위치 설치와 전등사용료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등설치를 위해 교환을 통해 전등공사에 전화하여 설치인을 부르고, 하인의 안내로 들어온 설치인은 주인과 20 와트 전등을 어느 방에 몇 개 달 것인지, 전등 갖의 양식 및 스위치 설치 여부, 전등 사용료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등 사용료는 전등 하나당 야간 내내 사용하면 1元 5角, 半夜만 사용하면 8角이라고 하며, 익일 설치하기로 한다.

중국의 근대화된 도시 조명시설은 서양인이 조계 안 남경로에 16개의 전등(아크등)을 밝게 비추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대화된 도시 조명시설과 상수도

20) 『申報』, 1872.5.10 『20세기 초 상해인의 생활과 근대성』, 50쪽 재인용.

21) 胡祥翰, 『上海小志』, 上海古籍出版社, 1989, 9쪽.

22) 『20세기 초 상해인의 생활과 근대성』, 50쪽-52쪽 참조.

망이 조계에 도입된 뒤 일부 상해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배척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다 많은 상해인들은 그것들에 자극과 부러움을 느꼈고, 결국에는 그것들에 동화되어 갔다.²³⁾

이러한 사실들은 《華語萃編(初集)》 제39과(上元佳節)의 대화 중 잘 드러나 있다.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제39과(上元佳節)

乙: 可以可以, 您今兒晚上出去看看罷, 各舖眼兒和各廟裡都有燈。
 (을: 좋아요. 오늘 저녁 나가서 좀 보세요. 각 점포와 사찰에는 모두 등을 달아요.)

甲: 是電燈, 是煤氣燈?
 (갑: 전기 등 인가요? 가스 등 인가요?)

乙: 不是, 是掛的燈籠, 有紗糊的有紙糊的, 裡頭點蠟, 上頭都畫着小說裡頭的戲齣兒。
 (을: 아니에요. 걸린 것은 초롱이에요. 실크로 된 것, 종이로 된 것이 있는데, 안에는 초가 있어요. 위에는 모두 소설 속의 장면[戲齣兒]들이 그려져 있어요.)

甲: 那麼晚上很熱鬧罷。
 (갑: 그러면 저녁에는 매우 떠들썩 하겠네요.)

乙: 這兩年也不怎麼樣了。
 (을: 최근 몇 년에는 그다지 뭐 별루예요.)

甲: 是現在不興了麼?
 (갑: 지금은 성행하지 않나요?)

乙: 倒不是不興, 因爲是解有了電燈比那蠟燈光亮多了, 人不愛看了。
 (을: 성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등이 생긴 이후로 촛불 보다 더 밝아서 사람들이 보기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甲: 是的日子一多也俗了, 再加上有了電燈更顯着不新鮮了。
 (갑: 그렇군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차 대중화되어 가고, 게다가 전등이 생긴 이후로 더 이상 신선하지 않거든요.)

乙: 可不是麼, 再就是還有放焰火的, 倒有個看頭兒。
 (을: 그러게 말이예요. 또 폭죽 터뜨리는 것도 있는데 그건 볼 만해

23) 『20세기 초 상해인의 생활과 근대성』, 50쪽-52쪽 참조.

요.)

甲: 是外國的焰火麼?

(갑: 외국의 폭죽인가요?)

乙: 有外國的也有本國的。

(을: 외국의 것도, 중국의 것도 있어요)

甲: 中國的不是叫花麼?

(갑: 중국 것은 "꽃"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乙: 是的。

(을: 맞아요.)

이 대화로 당시 중국 상해는 이미 전등의 보급으로 인해 중국명절중의 하나인 元宵節에 히는 등불놀이는 삶 속에서 대중들에게 이미 동화되었고 심지어는 별로 신선한 것이 아니게 느껴졌으며, 오히려 폭죽놀이가 더 흥미를 유발한다고 하는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아무리 신기한 물건이라도 별로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대중문화의 일면을 말해준다.

④ 난로와 온돌

다음은 난로에 관한 이야기이다.

교재 제36과 (冬日圍爐)에서는 당시의 난로와 온돌에 관해 알 수 있는 대화들이 등장한다. 대략적인 내용에 대한 서술과 관련 예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온도가 영하20도의 추운 겨울날 서양식 풍로에 불을 붙여 쪼다가 중국 북방의 온돌과 화로에 대해 이야기 한다. 온돌은 큰 침대 모양으로 벽돌을 쌓고 그 안에 불을 지피는 것인데 윗부분은 네모난 벽돌로 마감한다. 불은 앞쪽에서 피우게 만들기도 하고 뒤쪽에서 피우게 만들기도 한다. 매우 따뜻하지만 저녁때만 불을 때우고 낮에는 두 척 높이의 둥글거나 네모난 모양의 화로를 사용하는데 화로는 동이나 철, 석면 등으로 만든다. 연료는 무연탄이나 알탄인데 연통이 없으므로 통풍이 용이한 낮에만 쓴다. 이에 중국 창문에는 통풍구가 있어 환풍이 용이하게 되어 있다.

제36과 (冬日圍爐)

1. 甲: 不知道寒暑表有多少度。
(온도계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2. 甲: 這洋火爐子倒不錯, 又干淨又暖火比北邊兒的熱炕強多了。
(이 서양식 난로는 정말 좋구먼 깨끗하고 따스하고 북방의 화로보다 훨씬 좋구먼!)

이 대화를 통해 당시 중국 북방식 온돌과 화로의 사용에서 서양식 난로로 전환상의 편리함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화로는 동이나 철, 석면 등으로 만들었고 연료로는 석탄이나 숯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집안에 온도계를 설치하여 집안의 온도를 측량했음도 알 수 있다.

3. 나오는 말

일본은 1901년 장차 대륙 침략 실무에 필요한 중국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일본인의 능숙한 중국어 구사와 원활한 중국생활을 위해 해외 중국어 교육기관으로 당시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이었던 상해에 〈東亞同文書院〉을 설립하였다.

본고는 지금까지 〈東亞同文書院〉에서 1914년 北方官話로 집필을 마치고 1916년 발행한 《華語萃編(初集)》에 나타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을 중심으로 당시의 사회문화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11년 孫文의 辛亥革命과 근대화의 물결로, 중국은 서양 문물의 유입으로 의식주를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변화는 의, 식, 주 방면에 투영되어 옛것과 새로운 풍습들이 공존해 나타나게 되었다.

의생활 방면으로는 당시 중국에서는 서구 복식의 영향을 받아 양복을 입거나, 전통복식도 개량을 거쳐 새로운 양식을 창출하는 등 중국 전통복식과 서양복식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특히 머리스타일에 놀라운 변화를 보였는데, 거리마다 변발과 굽 높은 신발의 등장이 그것이다. 활동에 편리한 서양식 의복을 절충한 새로운 형

태의 의복도 등장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1911년 辛亥革命의 발발로 2000년간 지속되었던 황제 통치체제가 무너지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중화민국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신분에 따른 엄격한 복장의 규정이 폐지되어 1914년 《華語萃編(初集)》이 집필되었던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복식문화는 이미 신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개성을 창출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식생활 방면으로는 《華語萃編(初集)》 부록 제 9과 飲食類에 각종의 밥, 쌀, 죽, 면, 만두, 과자, 케익, 고기, 완자, 생선, 국, 콩, 견과류, 장아찌, 과일, 술, 기름, 간장, 음료수, 담배 등에 관한 많은 어휘들이 등장한다. 그 중 상해라는 지역 특성 때문인지 34종류에 달하는 각종 생선류에 관한 어휘와 20개에 육박하는 해산물에 관한 어휘들이 나열되어 있다. 특히나 당시 서양문물의 영향으로 여러 종류의 케익, 과자, 외국의 포도주, 맥주등과 같은 술, 통조림 등의 등장이 돋보인다. 그러나 이 교재가 일본인이 중국에서 원활히 생활하기 위해 집필한 것 때문인지 제25과 두 등장인물이 雅叙園에 가서 北京菜를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전체에 중국인들의 그 풍성한 上海요리를 포함한 4대 요리 혹은 8대 요리에 관한 자세한 언급은 없다. 다만 교재 중 약간의 중국음식을 포함한 외국의 여러 가지 음식문화와 일본인의 음식문화가 공존함을 알 수 있다.

주생활 방면으로는 당시 주거시설의 변화와 중국 북방의 난방 방식이 화제가 되며 당시 上海 거주 일본인의 생활수준을 엿보게 한다. 2층으로 된 양옥집과 전 등시설의 등장과 수도물을 마시며 전철을 타고 다니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중심지였던 上海의 서구화되어가는 모습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국의 전통 가옥인 사합원의 모습에 대한 배경 설정이나 서술은 보이지 않는다.

이상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을 중심으로 살펴본 《華語萃編(初集)》에 나타난 사회문화상이다.

위의 고찰은 《華語萃編(初集)》 부록에 나타난 어휘들과 교재내용 중 甲, 乙 쌍방이 서로 나누는 대화체를 통해 당시의 사회문화상을 살펴본 것이다. 이는 언어와 문화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끝으로 언어학적으로 특정시대, 특정지역의 사회문화적 정보를 가장 빨리 또한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어휘를 통한 사회문화상 연구를 기반으로 중국어발전사 연구에 많은 성과물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아울러 논문 편목의 문제로 이번 연구에 다 담지 못한 교통, 통신시설, 차문화, 풍속과 습관, 일본인의 하인부리기 등을 중심으로 한 《華語萃編(初集)》 사회문화상 연구가 이 연구의 후속으로 나올 예정임을 밝힌다.

〈參考文獻〉

- 東亞同文書院 編, 《華語萃編》初集, 1935년, 成均館大學校所藏本。
〔日〕六角恒廣 著, 王順洪 譯, 《日本中國語教育史研究》, 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2年。
王順洪, 〈日本漢語教育的歷史與現狀〉, 《語言教學與研究》, 1989年 第4期。
배경한 엮음, 『20세기 초 상해인의 생활과 근대성』, 지식산업사 2006년。
백광준, 〈辮髮에 얽힌 역사 그리고 노신 -시선, 표상, 의식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中國文學』, 제57집, 2008년。
문정진 외, 『중국 근대의 풍경』, 도서출판 그린비, 2008년。
안정애, 『중국사 다이제스트 100』, 2012년。
이재정, 『의식주를 통해 본 중국의 역사』, 가람기획, 2005년。
중국문화학회, 『중국문화의 이해』, 2000년。
패트리샤 버클리 에브리 저, 이동진·윤미경 역,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화메이, 『복식』, 도서출판 대가, 2008년, 103쪽。
고영란, 「1930年代 中國語會話教材『實用官話滿洲語問答會話集』(1935) 及『支那語旅行會話』(1937)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년。
김미은, 「일제강점기 중국어회화교재 어휘연구: 『自習完璧支那語集成』과 『無先生速修中國語自通』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년。
김민경, 「『官話叢集』과 『支那語獨習』 비교를 통한 1920년대 중국어교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년。
김신정, 「1940년대 중국어교재 『中國語基礎讀本』, 『(新編)中國語教本』 연구: 『中語大全

- (1934)』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년.
- 남윤순, 「1910년대, 1920년대 중국어 교재 연구: 『官話華語教範』(1915)、『無先生速修中國語自通』(1929)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년.
- 백지연, 「일본식민지시기 중국어회화교재 어휘에 나타난 사회문화상 연구: 『自習完壁支那語集成』과 『無先生速修中國語自通』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년.
- 소은희, 「日帝殖民地時期漢語會話教材研究」, 『중국문화연구』 제15집, 2009년.
- 소은희·김미은, 「일제강점기 중국어회화교재 『自習完壁支那語集成』과 『無先生速修中國語自通』에 나타난 사회문화상 연구」, 『중국문화연구』 제12집, 2008년.
- 소은희·심영숙, 「日本殖民地時期 중국어회화교재 『改正增補漢語獨學』(1911)에 나타난 일본의 대조선 교육정책 고찰」, 『중국문화연구』 제14집, 2009년.
- 신윤희, 「일제말 제3차 조선교육령기의 중국어교재 연구: 『(北京官話)支那語大海』와 『速成自習標準支那語教程』의 언어현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년.
- 심영숙, 「일본식민지시기 중국어 회화교재 『改正增補漢語獨學全』、『高等官話華語精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년.
- 이주연, 「1910년대 중국어 회화교재 연구: 『速修漢語大成』(1918)과 『官話華語新編』(1918)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년.
- 정경미, 「『滿洲語速成會話講義錄』의 음운표기체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년.
- 정선영, 「일제강점기 중국어교재 『中語大全』의 어휘분석과 사회문화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년.

〈中文提要〉

语言是文化的载体, 一个民族, 一个国家, 其社会制度, 经济形态, 价值观念, 思维方式, 风俗习惯等无不在其语言中得到反映。从语言学角度来看, 特别词汇研究可以说是获得特定历史时期社会状况最敏感, 最迅速的宝库。

本文以20世纪日本汉语会话教材《华语萃编(初集)》为语料, 通过考察这本书所出现的词汇, 对反映当时社会文化现象中的衣食住行等问题进行全方位地研究。

日本以培养完成1901年大陆侵略计划所需要的中国专家为目的, 为了使日本人能够灵活运用

用汉语和适应中国的生活, 在当时的政治、经济、社会中心上海设立了海外汉语教育机关《东亚同文书院》。

本论文以1914年完稿, 1916年发行的用北方官话编写成的《华语萃编(初集)》里出现的衣、食、住等生活面貌为中心, 探讨当时的社会文化现象。内容整理如下。

1911年, 在孙文的辛亥革命和近代化的浪潮下, 受西方文化的影响, 中国的衣食住等方面产生了很大的变化。这样的变化, 特别是衣、食、住方面, 使得以前的风俗和新的风气共存下来。

衣著生活方面, 在1911年辛亥革命爆发後, 持续了两千多年的帝王统治体制瓦解, 中华民国诞生, 国民成了国家的主人。根据身份来穿戴的严格的规定被废止, 衣服成了国民不顾身份高低, 自由地展现自己个性的手段。

饮食生活方面, 在《华语萃编(初集)》附录的第9课饮食类单词表中, 由於上海地区的特性, 罗列了近34种關於鱼类的词语和接近20种關於海鲜的词语。特别是受当时西方文化的影响, 突出了各种蛋糕、饼干、外国的葡萄酒、啤酒等酒类、罐头等的出现。但是这本教材是为了日本人能够适应中国生活而编写的, 所以通过教材可以了解到包括一部分中国饮食的外国的各种各样的饮食文化与日本人的饮食文化共存的事实。

住房生活方面, 两层的洋房和电灯设施, 以及饮用自来水, 乘坐电车等变化, 体现著政治、经济、社会文化中心的上海逐渐西方化的面貌。

關鍵詞: 20世紀初期, 日本漢語教材, 《華語萃編(初集)》, 詞彙, 上海, 社會文化現象

이 논문은 2013년 5월 15일에 접수되어 2013년 6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3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